

므누신·파월 “셋다운 지속땀 경제 영구 손상”

美경제 양대 수장 화상청문회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
손실 감수하며 각종 부양책”

미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수장이 19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과감한 경기부양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각각 이끄는 컨트론타워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미국 경제가 이르면 3~4분기 회복 국면에 들어서기까지 더욱 엄중한 지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므누신 장관은 “올해 2분기에는 더욱더 높은 실업률과 더 부정적인 지표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일터로 되돌아오게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주 정부들이 셋다운을 몇 달 연장한다면 미국 경제는 결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 영구적인 손상이 될 수 있다”면서 “보건 이슈를 고려하면서 안전

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재가동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의 유동성 프로그램에 제공한 4540억 달러에 대해선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준으로선 손실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라는 뜻이다. 재무부는 4540억 달러 가운데 1950억 달러를 연준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므누신 장관은 “나머지 자금(2590억 달러)도 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경기하강의 범위와 속도는 현대사에 전례가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침체보다도 심각하다”면서 “질문은 남아있다. 지원조치가 충분했는

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폭넓은 대응의 단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동성 지원의 범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정부·지방정부의 해고로 경제 성장에 부담을 가했다는 실증 결과가 있다”면서 지방재 지원 대상의 인구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각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이달 말까지는 실제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화상으로 열린 세계보건총회 세계보건기구(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과 직원들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상으로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 이틀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英정부 “한국 접촉자 추적 방식 배우고 싶어”

코로나19 사망자 545명 늘어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국의 접촉자 추적 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BBC 방송,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 부(副) 최고과학보좌관인 앤절라 매클레인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두 나라가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다. 매클레인 교수는 구체적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는 한국의 방식이 “매우 영감을 준다”면서 “이는 우리가 모방하기를 원하는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과 같이 ‘검사-추적-격리’ 전략을 펼치다 확진자가 늘어나자 이를 포기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 하에 다시 이같은 전략으로



코로나19 완화로 일광욕 즐기는 파리 시민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센강 주변에 시민들이 모여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미흡”
미 맥도날드
직원들로부터 피소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패스트푸드업체 거인 ‘맥도날드’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시카고 소재 맥도날드 매장 4곳의 직원 5명과 그들의 가족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문제 삼아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전문매체 CNBC와 시카고 비즈니스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는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맥도날드가 매장 직원들에게 마스크·장갑·손 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PPE)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직원 대상 대응 교육 및 안전 협약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는 등 코로나 확산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료 또는 고객과 근접해서 일해야 했다”면서 “한 매장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나, 관리자들은 동료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요식업체 매장에 폐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맥도날드는 드라이브스루·픽업·배달에 제한된 영업을 해왔다. 원고 측은 또 각각 속한 4개 매장 어디서든 직원 자신과 고객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훈련을 받지 못했고, 혼잡한 주방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없었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의연’ 논란에 日 우익 언론 “수요집회 중단·소녀상 철거하길”

산케이신문, 논설·기사·칼럼
한국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역사 문제에서 극우적 시각을 보인 일본 신문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20일 ‘반일 집회 그만두고(소녀)상 철거’라는 제목의 사실형식 논설에서 “비판에 귀를 기울여 반일 증오의 상징인 위안부상(평화의 소녀상)을 조속히 철거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씨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관해 “증오를 가르치고 있다”, “집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이씨가) 지금까지 함께 활동해 온 집회 주최 단체의 운영도 비판했다. 그것을 계기로 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의 의혹이 분출하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이 신문은 “이씨가 이번엔 정의연에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반일 집회를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며 “단체의 부적절한 운영 등을 부각한 것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지면에서 정의연 이사진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 국회의

원 당선인이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으며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피해자 요양에 쓰였으며 2013년 사들인 경기 안성시의 가옥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선족 출신으로 나중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리 스테스 일본 류코쿠대 교수는 이날 산케이신문 칼럼을 통해 “정의의 미명 아래 반일”을 표방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기부금을 모아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잇고 정계 진출을 노리는 단체나 개인이 있다는 실태를 몰랐다는 것인 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코로나 보석 좌절 한국인, 美 이민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강제추방 앞두고 지난 2월 구금 남부캘리포니아 지부는 안씨가 지난 2월 21일부터 구치소에 수감됐고 당뇨와 고혈압,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했다. 안씨는 이런 사유 때문에 코로나19 보석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주 이를 기각했다. ICE는 1988년 미국에 입국해 영구권자 자격으로 체류해오던 안씨가 2013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기를 마친 안씨는 강제 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말했다. 안씨의 동생은 ACLU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형은 인간이었지만, 그들(미국 이민당국)에게 형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다”며 “형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이민자 구치소에)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